



연세대학교의 대학생 커리어 지도실태와 전망

김 농 주 | 연세대학교 취업담당관

I. 취업정보실에서의 커리어 지도 실태

연세대학교 취업정보실은 학생들의 커리어 디자인을 돕고 취직을 하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 연세취업박람회

젊은이들, 그들은 대부분 너무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을 교내로 초청을 한다.

2001년부터 ‘연세취업박람회’는 이렇게 해서 기획되었다. 2000년부터 1년 정도의 준비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은 기획되었고, 무엇보다도 학생과 기업이 만나서 서로 구체적인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업도 자기들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꿈을 구체화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직접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다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다. 연세취업박람회는 다양하게 회사를 초청한다. 여기서는 학생과 회사가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사들은 자기들을 홍보할 여러 인쇄물들을 갖고 와서 자기 회사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여러 취업 정보를 얻게 된다.

■ 성공 면접을 위한 모임

성공적인 면접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청한다. 면접에서의 케이스 분석을 하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면접의 시뮬레이션을 알게 한다. 면접의 가치, 면접 프로세스, 면접 포인트가 회사별로 강의된다. 면접의 비중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보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대일 면접을 위한 여러 케이스 분석, 집단 면접 테크닉 등이 여기서 이야기된다. 한두 시간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질문도 받는다. 필요시 면접 리허설도 진행된다.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모임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취업 성공 노하우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 형식으로 발행된다.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들이 수록되고, 이력서, 자기 소개서 등의 샘플링도 소개되어 있다. 취업정보실은 이 책자를 통해서 취업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책자를 통해서 서류 작성 면접 직업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한다. 지금까지 언론분야의 아나운서, 기자, 대기업 이사, 게임회사의 대표들이 초청되어 한 시간 강연하고, 30분 정도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로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를 선택하게 한다. 이 행사를 통해서 관심 분야의 진출 전략을 알게 될 것이다. 일 년에 두 번 정도 진행하고 있다. 여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초청하는 경우도 있다. 여학생들을 위한 취업은 이런 전문가 초청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 연세취업정보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에는 연세취업정보센터의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된다. 알림방에서부터 지금 채용하는 회사의 정보(외국 회사/내국 회사), 특강, 유망 직업, 유망 자격증 방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연세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다. 주요 취업 인턴 정보, 아르바이트 정보, 취업 연관 기사도 게재한다. 또한 취업 정보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이런 정보들은 학생들이 교내 전역에서 보도록 하고 있다. 취업 정보를 지금 채용하는 회사별로 구체적으로

수집해서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선배와의 좌담모임

취업정보실은 학생과의 취업 정보의 교환의 장으로 취업 선배와의 모임을 주선하기도 한다. 전년도와 그 전년도의 취업 선배들이 재학생을 만나서 직접 취업 정보를 교환하게 한다. 선배들은 면접 후일담을 들려주거나 취업 문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 줄 기회를 갖는 셈이다. 이런 노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진행된다. 선배들의 이야기가 '연세취업정보센터' 상의 컴퓨터 화면상에서도 이루어진다.

■ 기업 경영자 초청 강좌

기업 경영자들을 초청해서 특별한 강연을 듣는다. 이는 곧 각 분야의 산업의 흐름과 기업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경영자상을 그려 보고, 미래의 경영자를 꿈꿔 갈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경영자들은 자기들의 비전과 철학, 회사 홍보를 하고 학생들은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인별 커리어 컨설팅 시스템

연세대학교는 개인별 커리어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커리어 컨설팅을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은 '30년 후의 자네 꿈은?'이다. 개인별 취업 애로, 개인별 커리어 디자인을 하고, 종합적으로 개인별로 적합 직종들도 컨설팅된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들은 꿈을 구체화해서 갖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바라는

인생 구상이 여기서 진행된다. 내담자는 많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깊이있는 인생 구상을 펼치게 한다.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얻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 내외국인 회사의 직업 환경과 커리어 디자인 특강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세대학교는 취업정보실에 내외국인 회사의 입사 전략과 커리어 디자인 특강 프로그램을 8년째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특강을 듣고 집단 및 개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호텔, 다국적 전자회사, 외국 투자은행들의 직업 여건을 리얼하게 분석한다. 직업 조직이 변하는 환경, 국내외 회사와의 임금협상 테크닉도 이 특강 주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강의는 학생들의 다양한 인생 구상을 돕는다. 스피드하게 변하는 학생들의 취향을 시대별로 다르게 체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회사의 직업 선택 방법과, 무역 회사의 직업 여건들이 강의된다. 또한 건축 부동산 회사들의 직업 여건과 준비방법들이 분석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들이 부동산 컨설턴트가 되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유통 회사 이야기가 전개된다. 유통 회사의 비전과 취약점은 무엇인가, 어떤 체질의 사람들은 유통회사와 직업적으로 잘 맞지 않는지도 강의된다. 국내외 해운 비즈니스의 역할과 경제적 가치, 그 속에서 일하는 환경들이 리얼하게 이야기된다. 글로벌하게 변하는 직업 여건, 외국인 투자은행과 국내 은행의 직업 여건 차이와 커리어 디자인 전략이 강의된다. 외국인 회사에서의 인터뷰 케이스들이 분

석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진다. 외국인 음악 미술 메이크업 회사의 미래 전망과 스포츠 연관 글로벌 기업의 여건들이 해석된다. 초점은 직접성에 있다. 직접 젊은이들이 커리어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상이야기가 주류다. 외국 대사관 문화원 직원이 되는 길, 국제기구 진출하는 길에 대하여도 강의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직업 세계를 학생들이 알게 한다. 이 중에서 선택은 개인이 하게 한다. 이런 프로그램의 의의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30년 후의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8년간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아탑에서만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직업의 구체적 세계를 알려 주는데 그 목적이 존재한다.

II. 취업정보실의 운영 전망

인생의 전체를 보고 자문하는 일에서부터 대학의 진로 지도는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셰익스피어가 이야기 하듯 '무대 위의 역할 연기' 같은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만들어 가든 역할 연기를 하게 된다. 대학생들이 역할 연기를 잘 찾도록 취업정보실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대학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역할 연기에 리더적인 목표가 하나 더 첨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1세기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시작한 대학은 이제 10세기가 지나간 제도다. 학문은 이곳에서 연구된다.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곳이다. 대학은 다양한 인재를 가르치는 곳이고 봉사하는 곳이다. 대학은 인

력 시장의 기업가들에게 좋은 인적 자원을 양성해서 공급해야 하는 이런 역할이 한 가지 더 주어져 있다. 이런 대학의 여러 역할 속에서 대학의 취업 정보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진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첨단화를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흐름 속에서, 저성장 저고용의 패러다임으로 많은 수익을 지향하는 경영인들의 요구에 맞춘 인적 자원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한 기관의 설문 조사를 보면 한국의 대학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의 신입사원 만족도가 낮다고 한다.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이 문제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스코어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대학생들의 진로 컨설팅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대졸 미취업자들이 있다. 이들의 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적 과제이자 오늘의 한국 대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취업난 속에서 아이러니 한 현상이지만 공적 기관의 통계로도 지금 취업을 한 한국의 대졸 인적 자원의 10퍼센트가 일 년 이내에 직장을 이동하는 파랑새 증후군이 존재한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숫자적으로 그렇다. 이들은 경기적 요인에 의해서 미취업인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는 고용 정보를 제 시기에 취득하지 못해서 미취업인 마찰적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이 많다. 구조적인 미취업인 인적 자원이 의외로 많다. 이는 대학이 배출하는 인적 자원의 전공과 직업 조직이 지금의 고용 여건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과의 부조화, 간극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미취업인 것이다. 이 세가지의 원인으로 해서 대졸 인력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런 세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 해결 방법도 그리 쉽지가 않다. 오늘의 한국의 대학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학생들의 미취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취업 진로 시스템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자. 대학들은 근래에 대학에 많은 회사들을 초빙해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설명회를 하면 인기 있는 회사들은 5백 명 들어가는 강당이 가득 찬다. 하지만 인기 없는 회사는 학생들이 소수만 참석하고 있다. 진로 편식증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 대학생들의 흐름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인기 있는 회사들은 그들의 회사 팸플릿을 디자인에 신경을 기울여서 만든다. 학생들은 이런 포스터를 보는 순간 그 회사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열정적으로 표출한다. 좋은 인적 자원을 채용하기 위한 회사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뤄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준비를 못하는 회사는 대학의 캠퍼스를 방문하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호응을 내적으로 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이다. 일전에 만난 영국계 홍보 회사 경영자인 C씨는 말한다. “한국 대학생들은 몇 십만 명이 열 손가락에 드는 직업에 너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다. 이런 커리어 편식증의 치유에도 연세대 취업 정보실은 미래에 관심을 더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